



1화 복학생 한공학, 아람이에게 꽃하다!

복학하니 세상이 변했다.



공학 교육 인증?

이게 뭐지?

공학교육인증

이유야 어쨌든 공학인증의 길을 택했다.



공학인증

공학

아람아~❤️

전공 60학점 이상

그냥 강의 듣는 게 낫지~ 팀 수업 이란게...

얼른 '신나랜드' 매출증대 방안이나 내놔 봐요!

"장의설계"



히힛~ 데이트가 따로 없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껴본다.



아람이 말이 무조건 맞아!

선배의견이 뭐냐니까요?



발표회 때 기업 실무자들이 직접 심사한 것도 신선했다.

외국사례

아람이 화이팅!

오~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요?

아이디어 괜찮네~

수업 중 어려운 점 있나?

아니... 요

교수님과는 수업시간에만 되었었는데... 이젠 다르다.

설계과목이 힘들지만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되신 듯 하다.

아람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헉



2화 한공학군, 숨은 능력을 보여주다!

이제 나도 어엿한 직장인~



이번에 호주 BOORANG사의 새 무인항공기 개발사업을 따내기 위한 TF팀을 구성합니다.

오옷! 이 기회에 눈도장을~



이번 PT는 회사의 사활이 걸렸으니 신경쓰게!

넵

머칠 후



팀장님임~ 제가 '공학도' 잡아요. 꼭 참여시켜주세요.

네?

네?

공학도??



팀장님! BOORANG사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공학교육인증 이수한 엔지니어 참여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데요?

공학교육인증?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공학 기초 실무능력을 교육을

갖추도록 특별 받은거죠.

응? 자네가 그걸 어떻게?



제가 바로 인증제를 이수한 인재 아닙니까? 하하하~

하하

자네가?



전공 지식 되죠, 문제해결 능력 되죠, 팀워크 되죠!

오호~!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구만!



자~ PT 전까지 합숙이다. 집에 들어갈 생각 마!

인정받은 건 좋은데... 고생시작 이구나~



3화 해외에서 더 알아주네? 요런 줄 몰랐지?

호주 출장전에 교수님께 인사왔다.



교수님,
항공학
왔습다~

아니, 저 세련된 처자는???



오늘 반가운 손님들
많네~ 마침 아름다
왔다네.

선배!

미국 유학 중이지?
아주 온 거니?

아니요~



이번에 Boogle사에
합격했어요. 본격 출근
전에 잠시 귀국한
거예요.

헉!
굴지의
Boogle에?

Boogle사는
미국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더라고요.

역시
일류 회사라
요구 수준도
높네~



그 시험 보려면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인증 이수했다
니까 인정해 주던데요?

수업들을 땀
힘들어서 포기할까도
고민했었는데...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나 보네.

그러게요.

나도 너
아니었으면
포기했을걸?



다 끝까지
이끌어주신
교수님 덕분
이에요.

꾸벅

허허!



다들 이렇게 제 몫을
하는 모습을 보니
부듯~하다.



아...아름아,
페이스북 주소 좀
알려줘~

항공학 군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가?

